

아프리카에 불자 관심 ↑ ...6억 7천만원 모금

아름다운동행 9월 9일 탄자니아 농업학교 기공식

한국불교계에서는 최초로 조계종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학교에 대한 세간과 출세간의 관심이 높다.

지난 5월 '아프리카 학교 건립 프로젝트'를 선포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농업학교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을 시작한 이래 약 6억 7천 만원이 모인 것. 아름다운동행이 책정한 건립 예산인 30억 원 가운데 약 4분의 1에 달하는 액수다.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5월 선포식을 개최 후 모금활동을 본격 시작해왔다. 선원 수좌회를 비롯해 스님과 독지가 등 많은 이들이 아프리카 복지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금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지역분쟁과 전염병 및 높은 문맹률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인지 불자들은 어느 때 보다 더욱 관심을 갖고 심시일만 보시금을 전해 훈훈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최근 아름다운동행에 돌잔치 축의금과 자녀를 위해 모은 적금 등 1천만 원을 보시한 부부가 그 첫 번째 주인공이다.

대구에 사는 이해음·권정옥 부부는 어릴 적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남편 이해음 씨의 잦은 이직과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늘 이웃의 도움을 받아오며 살아왔다.

3년 전 늦둥이 아들을 낳은 이씨 부부는 "어렵게 얻은 아들의 돌잔치 축의금을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노라고 생각하던 차에 중학교 3학년인 딸과 비슷한 또래의 아프리카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은 8월 8일 아프리카 탄자니아 학교 건립기금으로 710만원을 후원했다. 이번 기금은 7월 5-7일 진행된 해민 스님과 함께하는 '2030 마음치유 템플스테이' 참가자 150명의 참가비 전액으로 마련됐다.

지난 해 5월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를 출간해 베스트셀러로 꾸준한 사랑을 받은 정목 스님도 지난 7월 인세 일부인 2천만원을 건립 기금으로 쾌척했다.

정목 스님은 "조계종단에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청소년들에게 농업학교를 건립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아프리카 청소년들이 삶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고자 한다"며 기부의 뜻을 전했다.

이 밖에 아름다운동행의 감사를 받고 있는 김병석 변호사가 108만원의 기금을, 불

자로서 평소 불심이 깊은 박승우 병원장(서울가정병원, 서울행정병원)이 1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전국 사찰과 불자 개개인이 심시일만 정성금을 보내오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이 3달 간 6억 7천만원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선원수좌회의 도움이 가장 크다.

조계종 선원수좌회(대표이사 의정)가 지난 5월 아프리카 학교건립을 위한 나무 갤러리에서 진행된 선원화전을 통한 수익금 중 5억 원을 쾌척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 불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해일 스님은 "아프리카에는 인간답게 살아갈 생활환경이 부족하고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은 너무나 열악하다. 식량을 제공하고 우물 파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들이 배움을 통해 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정산 스님(맨오른쪽)은 템플스테이 참가자 150명의 참가비 71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로 미래를 가꿔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각종 분쟁과 기아·질병으로 악순환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의 현실에 공감하는 불자라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9월 초 개교를 계획하고 있는 아름다운동행은 9월 9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농업기술학교 기공식을 개최했다. 또한 기공식에 동참할 참가자를 모집해 나눔투어도 진행한다.

9월 6-15일 7박10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나눔투어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사업장 및 케냐 나이로비, 마사이마라 지역 등을 둘러보며 빈곤으로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아프리카의 문화와 환경 등을 직접 느끼는 시간을 갖고자 기획됐다.

아름다운동행의 아프리카 학교건립 동참에는 벽돌 한 장 1만원, 책걸상 세트 5만원, 땅 한평 10만원, 식수대 30만원, 컴퓨터 한 대 100만원, 교실 한 동 1,000만원, 병당 건립 5,000만원으로 동참할 수 있으며, 아프리카 학교건립을 위한 CMS정기후원도 가능하다(전화 301-0112-9859-51 예금주:아름다운동행, 문의 02-737-9595)

이아은 기자 oasis1983@hyunuf.com

이익수 법사, '장기기증 명예의 전당'

162명 장교후보생 장기기증 등록, 명예의 전당패 수여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오른쪽)과 이익수 법사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육군학생군사학교 학림사 주지 정행 이익수 법사를 장기기증 명예의 전당에 헌액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8월 6일 본사 사무실에서 헌정식을 열고 장기기증을 홍보해 162명을 희망등록자로 추천한 이익수 법사의 공로를 기념하며 명예의 전당패를 수여했다.

'장기기증 명예의 전당'은 희망등록자 추천 100명 이상을 달성한 회원을 격려하고 포상하기 위해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다.

이익수 법사는 법인 설립 초창기인

1995년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한 후 꾸준히 생명나눔운동을 홍보해 왔다. 지난 해부터 학림사에서 직접 캠페인을 지원하기 시작해 법당에서만 희망등록자 누적 284명을 기록하고 있다.

일면 스님은 "자비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군 교교와 장기기증 홍보를 결합하여 활동하는 법사님을 보면 대단한 활동력이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한국불교와 국민행복을 위해 정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익수 법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건강하게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장기기증을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이아은 기자

본동복지관, 지구 지키는 '건전지 캠프'

7월 26~27일 30여 청소년 참여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은 지역 내 청소년들이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2013년 청소년자원봉사캠프 '부엉이캠프-건전지'를 진행했다.

복지관은 7월 26-27일 관내에서 30여 중·고생과 함께 '건전지: 건전한 전기·물 사용으로 지구 지키기'를 주제로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보존의 소중함을 느끼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학생들은 부엉이캠프를 통해 생활 속 작은 절약 방법을 실천하고, 절약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또한 나눔장터를 개최해 물물교환을 함으로써 쉽게 버려지는 물건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인식 향상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아은 기자



환경보존을 주제로 골든벨 퀴즈게임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다문화 전문가 아카데미 과정 개설

한국다문화센터, 9월 10일부터 진행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무원)는 다문화 전문가 아카데미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9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1회 2시간씩 8주 동안 이론과 실기 등으로 진행되며, 이현정 다문화아카데미원장, 김성희 한국다문화센터 운영위원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문화 이해 과정(다문화의 역사, 글로벌 경제와 다문화) △국가별 이민·다문화 정책 사례 △올바른 다문화 활동 전개를 위하여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접수기간은 2013년 8월 15-30일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교육비는 교재비 포함 25만원이다.

한국다문화센터는 "이번 교육은 글로벌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교육관을 지닌 다문화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다문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진이 직접 교육을 진행한다"며 "다문화 관련 업무 종사자, 다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 또는 일반인, 다문화 강사를 꿈꾸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생은 (사)한국다문화센터 홈페이지(www.cmck.kr)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cmck@naver.com) 또는 팩스(02-737-0467)로 접수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다문화센터 (02-737-0467-8)로 문의하면 된다. 이아은 기자

기민지 사회복지사, 새내기 사회복지상 수상

종로노인복지관서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제공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국민일보, 삼성전자가 공동 주관하는 새내기 사회복지상 6월 수상자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기민지 사회복지사(27·여)가 선정됐다.

기민지 사회복지사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뒤, 2010년 9월부터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을 시작했다. 현재 그는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보증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건강증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맡고 있다. 현재는 올해 초 종로구청 내 오픈한 서울시 고령자기업 '플러스카페'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기민지 사회복지사는 "노인 문제의 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맡고 있는 기민지 사회복지사.

장 좋은 해결책은 일자리 제공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플러스카페'는 가장 이상적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아은 기자

세계 침구 한의대학, 중국1위 중의대학

중국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 모집요강**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1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1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신문, 영어학 등
-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활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관리
-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3년 8월 20일
- 문의처**
 -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 팩스 : (02)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경중의학대학
(南京中醫大學) 02)511-1080,2026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중단

울종)불교 조계종

불교조계종의 종풍은 계율정성한 울종의 가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의 진리를 포교하여 세계인들의 마음에 안심을 구현하고 세계질서의 평화로운 세계와 불국정토의 세계를 세우는 일에 주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정법 구현의 사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본 종단에서는 승려전문 노인 병원, 종단사업(건설, 출판, 홍삼, 기타사업 등)과 복지타운을 건립해 다양한 승려노후 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총무원장 헤인 합장

입종 및 사찰 등록 안내

<p>◆ 제출서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 승적원부 (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 승적증빙서류 (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 사찰 전경, 내 외부 사진 각 1부 · 반 명함 사진 5매 (대가사를 수한 사진) 	<p>◆ 참고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	--

●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 135-887 ●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 총무국 : (02)511-2026~7 팩스 : (02)511-2028 ●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 종단사업부 : 02)549-1918 ●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